

##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청렴 1등급 목표”

정읍시가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진행했다. 강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직장내 갑질 등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문에 이슈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미주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참여자들이 현실적 해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법령 이해와 더불어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시설개선 착공

정읍시가 북부권 어르신들의 여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북부노인복지관 시설개선에 본격 나섰다.

시는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한 총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협소했던 경로식당과 프로그램실 증축 공사를 추진한다. 연면적 268㎡ 규모로 증축되는 이번 사업은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치고 8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시는 복지관 위생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시비 1억 4000만원을 투입, 외부 화장실을 새로 증축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페족한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여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개장

400여명 시민·어린이 참여… 유아놀이터 등 7개 테마 갖춘 아이·가족 모두의 공간



정읍시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우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를 1일 공식 개장했다.

시는 지난 7~8월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며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아이들이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환경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는 체험형 놀이공간으로 조성됐다.

개장식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려 400여 명의 시민과 어린이들이 함께했다. 현장에서는 풍선공연과 댄스공연 등 이벤트가 펼쳐져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어린이들은 놀이공간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웃음과 활동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참여형 놀이공간이다. 약 1만9000㎡ 규모의 넓은 부지 위에 △유아놀이터 △거미줄놀이터 △단풍나무놀이터 △모래놀이터 △골목길놀이터 △숲놀이터 △청의놀이공간 등 7개의 테마 공간이 조성됐다. 각 공간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놀 이하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

도록 설계됐다. 특히 놀이창고에는 모래놀이 도구, 고리걸기, 글령쇠 등 다양한 전통·청의 놀이도구가 비치돼 아이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시는 기적의 놀이터를 단순한 놀이 공간 넘어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은 1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9월 공감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한신한 유공 군민들에게 권의현 부안군수 공로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 “군민들의 안전·건강 최우선”

부안군, 사회단체 생수 나눔 봉사 유공 군민 공로패 수여식 진행

부안군(군수 권의현)은 1일 부안군 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9월 공감의 날 행사에서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한신한 유공 군민들에게 권의현 부안군수 공로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여식은 부안군지역발전연합회(회장 전용호)의 생수 기탁 및 전북 14개 시군 폭염 대비 안전 물품 지원을 통해 더위에 지친 군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원한 얼음물 및 부채 등을 배부한 사회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권의현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먼저 손을 내밀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유공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나눔과 봉사

정신은 우리 부안을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군에서도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로패를 수여 받은 유공군민은 부안군지역발전연합회 전혜성·정영순, 바르게살기운동부안군협의회 김종숙·정홍모, 부안군해로타리를 럽 김은울·민숙, 대안적십자사봉사회부안군협의회 김만식·이혁기,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 기세우·김숙자, 한국자유총연맹부안군지회 황현대·김명순, 부안해당화로타리를 럽 박가을·홍정숙, 국통일여성협의회 부안지회 고광월, 부안노인복지센터 강현화, 부안수협 강정윤·김대한씨 등 총 18명이다.

/부안=김석진기자

## 고창교육지원청 거점늘봄센터, 전북형 모델로 자리매김

2025년 늘봄지원실장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 거점늘봄센터는 도내외 시·군 교육청이 센터를 찾아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 할 정도로, 도내 거점형 늘봄학교는 도내 여러 교육청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내 늘

봄지원실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고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늘봄지원실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늘봄학교 정책 및 운영 이해 △늘봄지원실장의 역할과 책임 △학교 민원 대응 방안 △교육공무직 이해 △늘봄학교 예산 및 회계 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사례·나눔과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사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운영 과정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강화

정읍시가 멧돼지, 고라니, 철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 지원과 예방사업, 포획활동을 대거로 추진하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돋고 있다.

시는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해 야생동물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작물별 소득액과 실경작

면적, 피해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80%를 보상한다.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제외되며, 지원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겨울철에는 동진강 인근에서 철새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 올 상반기에도 라이그리스 보리 등이 피해를 입어 101세대에 3800만 원이 지원됐다. 지

난해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피해 농가 32곳에 5800만원, 철새 피해 농가 99곳에 2700만원이 각각 지원된 바 있다.

예방 지원에서도 철제형과 태양광형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는 올해 2억 4000만원이 투입 됐으며, 현재 55농가가 신청해 추진 중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